

◀하나님 나의 하나님▶ 말뚝박은 시골목사 강원도 신평교회 목사 신익호

따르릉 따르릉
 다급한 성도의 방문 요청에
 맨발로 달려가 보니 기다리는 건
 병든 송아지 한 마리
 안타까움에 일그러진 성도의 얼굴
 얼떨결에 송아지 머리잡고 기도했다.
 그리고 난 그 교회에 처음으로
 말뚝을 박았다.

부임하고 맞이한 첫 주일
 고장난 앰프 끝내 손 뚫 보고
 고래고래 소리내어 예배 마치고
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전화
 "목사님!
 온 마을에 소리가 다 나갔어요!"
 앗차! 외부 스피커로 온 마을에
 생방송된 예배실황.

가난한 성도
 가을에 추수하여 방앗간 기계에서
 처음 떨어지는 알곡 한 말
 어깨에 메고 교회로 달려오는데
 성도의 검게 탄 얼굴 사이로
 흰 이가 반짝거린다.
 그 날 내 마음엔 눈물의 강이 생겼다.

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아침
 방문 앞 현 신문에 찢인
 이름 모를 산나물 한 봉지
 별것 아니어서 드리기 민망해
 살며시 두고간 이름 모를 성도의 정성
 그 마음이 감사해
 내 마음 눈물의 강에 꽃이 피었다.

까만 얼굴 피곤한 모습
 눈 일 끝내고 찾아 온 예배당
 그들을 바라보며
 처음으로 내 얼굴 희지 않고 검음에
 감사했다. 그리고
 마음의 짐을 조금 벗었다.

부임한지 팔 년 만에
 학생회 사라지고 주일학교 사라지고
 동네엔 아이들의 재잘거림 줄어들고
 예배당 빈 좌석은 점점 늘어가는데
 이 모두가 못난 목사의 책임인양
 교인보기 민망하고 주님보기 죄스럽다.
 죄인이 따로 없는 목사의 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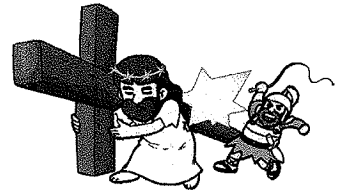
아빠가 최고인양 자라난 아이
 어느새 철이 들어 눈치는 빠삭한데
 애써 외면하고 어깨에 힘줘 보지만
 감출 수 없는 작은 시골교회
 아빠 목사의 처진 어깨는
 무엇으로 감춰야 할거나.

피서 길에 어쩌다 들른 도시교인
 수 억의 예배당에 시설은 어찌구 저찌구에
 내 모습 점점 작아지고
 내 얼굴 검음이 부끄러움 되어
 쥐구멍을 찾는다

구심먹은 할머니 집사님
 못난 목사 손 잡으며 하는 말
 "내 죽을 때 까지 가지 마세요!"
 내 나이 마흔 하나
 도회지에 나가서 목회하고픈 마음
 이 궁색함 면하고픈 마음 간절한데..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'2004년 교회생활 "비보 같은 교회"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6권 12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4년 3월21일
☎520-9464, 369-5077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		

신령과 진정으로



예배 드리는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
 있었습니다.
 어느 날 사냥을 나간 왕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
 그 앞을 어떤 여인이 간절하고 애타는 표정으로
 감히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.
 왕은 너무나도 무례한 이 여인을 도저히 용서할
 수가 없어서 기도가 끝난 다음 그 여인을 당장

불러 앉혀 놓고 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 왕이 그 여인에게 묻기를
 "너는 도대체 무얼 믿고 나의 가장 중요하신 분께 기도 드리는 곳을 무어
 하게 지나갔느냐?"
 여인이 대답하기를
 "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던 숲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.
 저는 그 사람 생각에 누구도, 심지어는 전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
 았습니다.
 한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저일진대
 전하는 그토록 위대한 분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저를 보셨습니까?
 그토록 대단하신 분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면서 저와 같은 여인을 보
 실 수가 있었습니까?"
 왕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



◀그뻐 그랬지▶ 운동장에서 일제고사
 전교생인지 학년별인지 기억도 희미하지만 운동장
 맨땅에 앉아 걸상을 책상삼아 보던 시험, 전교생이
 한꺼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해 고안해
 낸 운동장에서 보던 시험이었습니다. 일제히 같은 문
 제의 시험을 본다해서 '일제고사'인 것 같은데 어
 림때는 일제시대때 보던 시험이라 '일제고사'인줄
 알았습니다. 시험에 대해 별 신경쓰는 것 없이 평소
 처럼 가서 보던 초등학교시절, 어느 새 그 때의 선생
 님보다 더한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.

◀남편 기 살리는 말▶
 "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!"
 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 "내 그럴 줄 알았어요"

◀아내 기 살리는 말▶
 "학교다닐 때 당신 때문에
 마음 졸인 농 한돌이 아니었겠다"
 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 "꿈 깨"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Calvary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3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41 (이사야 65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		주일학교
찬송 Hymn	188장	다 같이
기도 Prayer		김종건 장로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요한복음2:1-11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은 십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신나는 예수님의 활약(1) 물을 포도주로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217장	
헌금 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을 더욱 굳세라' (1절다같이)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맞습니다)

◆3월의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헌금위원	설것이
7	김순자	박상옥	5구역
14	김영길	박 실	6구역
21	김종건	박재양	청년부
28	노은숙	박정자	7구역

2004년 교회표어 "바보같은 교회" (창6:22) *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. 그래도 살아본다 *누구나 평등하다.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	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---	---

주일예배: 낮 12시	수요예배: 저녁 7:30	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	청년부: 토 저녁 6시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- 교우소식
 <소량이사 개업> 박병민 집사 "OK MOVING" 449-1777/021-109-9757
 <감사하는 마음> 김수찬, 윤영전 집사. 영주권 취득.
 <한국방문> *유병민 집사
 *지재만, 김현자 집사(1남여성교회)
- "부활절 봉헌 영어성경 쓰기": 필사용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
 * "...한 자 한 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봅니다" 말씀앞에
 누구나 어린아이가 되어 봅니다
- 오늘은 식사천교주일입니다.
 *대전 부근 어느 역쯤 가면 우동파는 아저씨들이 올라와 10분정도 정차하니 먹고
 가라는 말에 막간을 이용해 먹던, 동네 잔칫날 무쇠술에 삶아 내던 현면발의 국수...
 가늘고 긴 기억으로 흘러 놓아진 그리움되어 남아 있습니다
- 오늘은 은 십자가 성가대 찬양 * 제1남성교회(4월: 2여성교회)
 *삶의 여정이 묻어 있는 희끗한 머리와 깊어진 믿음으로 불려지는 찬송은 숙연
 한 가슴으로라야 들리는 영혼의 울림입니다.
- "수재헌금": 우리교회 수재헌금 \$1,000과 Holy Sepulchre Church \$1,000 (합
 계 \$2,000)을 이번 수해로 물에 잠긴 Wellington 근처 Bulls에
 있는 Wherico Church 에 보내 드렸습니다.
- "자녀를 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" (예고) <일시> 3월 29일-4월 10일(토)
 * 한 해가 시작되고 3달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녀들이 살 같이 빠른 시간을 낭비
 없이 잘 준비 된 인생을 살도록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.
- 학생부 Sports Day: 오늘 식사 후 YMCA 체육관 (2:30pm-4:30pm)
 *운동 마치는 시간에 자녀들 Pick Up 바랍니다

◀착한 시인들▶ 아내의 브래지어 -박영희-

.....나 오늘 아침에
 아내의 브래지어 빨면서 이런 생각해보았다
 한 남자만을 위해
 처지는 가슴 일으켜세우고자 애썼을
 아내 생각하자니 왈칵,
 눈물이 쏟아져나왔다
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
 남자도 때로는 눈물로
 아내의 슬픔을 빠는 것이다
 이처럼 내는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
 동굴처럼 웅크리고 산 것을
 그 시간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
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가
 반성하는 마음으로 나 오늘 아침에
 피곤 두 방울 떨어뜨렸다
 그렇게라도 향기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

아직도 건조대에 걸려있는 아내의 브
 래지어를 보면 눈을 어디다 들지 모
 르겠습니다. 그러다 한평생 조이고 살
 아야 하는 여자의 일생이 불쌍하다는
 생각이 듭니다.
 아내들이 조이며 사는게 어디 그것
 뿐이겠습니까. 차고에 차 들어오는 소
 리가 들려야 마음 놓이는 자녀의 귀
 가, 고국에 계셔도, 모시고 오려해도
 마음쓰임과 눈치보임에 조이는 가슴,
 아끼고 절약해도 월말이면 점점 줄어
 드는 가계형편...
 떠나 보내기 위해 옷 갈아입히며 보
 았던 어머니의 말라버린 젖무덤은
 눈물 짓게 하는 조이며 사셨던 흔적
 이었습니다.